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 일 시 : 2023. 12. 21. (목) 14:00
- 장 소 : 서천문화원 강당(2F)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12. 21.(목) 14:00
- 장 소 : 서천문화원 강당(2F)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방안 모색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 :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14:05~14:20	15'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전익현 의원
〈 토 론 회 〉 ※ 좌장 : 전익현 의원			
14:20~14:45	25'	주 제 발 표	김은실 교수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14:45~15:30	45'	지 정 토 론	토론자 5명(각 9분) 김혜린→맹혜영→전희진→허난설→김숙희
15:30~16:00	30'	자 유 토 론	좌장, 발제·토론자, 청중
16:00~16:10	10'	정 리 및 폐 회	전익현 의원

목 차

■ 주제발표

-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및 상담 개입 방안 1
김은실 교수(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 지정토론

- ☞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현황 및 예방 19
김혜린 과장(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팀)
- ☞ 약물중독의 치료방안에 관하여 27
맹혜영 센터장(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 ☞ 약물중독의 예방 정책 방안(학교 예방교육 중심으로) ··· 33
전희진 장학사(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 청소년 및 청년기 약물 중독 예방 및 개입 정책에 대한 제언 ... 41
허난설 교수(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 중독상담의 현장 적용 방안 49
김숙희 전문상담교사(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주제발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및 상담 개입 방안

김 은 실 교수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및 상담개입방안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차 례

- 01 청소년 약물중독의 심각성
- 02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대처현황
- 03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01. 청소년 약물중독의 심각성

- SNS 메신저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던지기, 다크 넷, 암호화페 등 마약류 거래 수단 다양화, 신종 저가 마약의 등장,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 등은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쉽게 만들고 있음.
- 2012년 마약류 사범 중 19세 이하 비율이 0.4%(38명)에서 2021년에는 1.8%(450명), 2022년에는 2.6%(481명)로 증가됨.
- 대마의 사용 비율이 높았으나 마약과 향정신성약물의 비중이 높아짐.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현황
(2012년-2022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마약류 사범 중 19세 이하 비율
2012년	0	26	12	38	0.4%
2013년	2	39	17	58	0.6%
2014년	0	48	54	102	1.0%
2015년	0	78	50	128	1.1%
2016년	2	91	28	121	0.9%
2017년	0	70	49	119	0.8%
2018년	2	105	36	143	1.1%
2019년	3	167	69	239	1.5%
2020년	39	196	78	313	1.7%
2021년	196	192	62	450	1.8%
2022년	108	332	51	481	2.6%

출처: 2012-2021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재구성, 2022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02.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대처현황 : (1) 관련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 대표적 법률
 -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 관리를 통해 이들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대한 예방 대책의 주요 근거
 - 마약류 뿐 아니라 주류와 담배를 포함하여 환각물질,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하여 규제
 -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시행
- 「학교보건법」: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근거
 - 매년 초 학생건강증진정책방향을 통해 보건교육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의 근거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의 하나로 약물·사이버 중독이 포함되어 있음.

02.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대처현황 : (2) 관련 정책

• 제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 - 2024)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마약류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불법·유해 정보 신속 차단 등 규제체계 정비	·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 신속 차단 및 불법 광고 행위 근절 - 도박마약 정보 등 신속 삭제처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 검토(방통위) -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금지 법적 근거 마련(과기부, 여가부)
온오프라인 청소년 대상 불법 유통 근절	· 불법 마약류 판매·오남용 등 감시시스템 강화 및 유통 제한(식약처, 경찰청) - 마약류 의약품(멘탈 패치 등)의 청소년 처방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집중 관리(식약처)
아동청소년 음주·흡연 등 예방교육 강화	·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 및 교사 역량강화 지원(식약처)
청소년 보호 의식 제고 및 신분 확인 생활화 유도	· 음주·흡연·마약류 유해성 홍보 및 예방 캠페인 등 추진
유해약물 오남용 청소년 치료 지원 확대	· 알코올, 마약 등 중독 치료·재활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강화(복지부, 식약처) ·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기능 강화 및 확대(여가부) - 정서행동문제 이외에 중독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지원 검토

출처 : 여성가족부(2022b),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재구성

-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

→ 구체적인 후속 정책의 필요

→ 예방과 치료 중심 대응으로 변화

02.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대처현황 : (2) 관련 정책

•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대책

핵심과제	주요 내용
학생·청소년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	▪ 기존의 찾아가는 법교육에 마약예방교육 추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 협회 등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콘텐츠 개발과 전문 강사 양성 ▪ 최신 트렌드에 맞는 홍보와 교육방법 활용
<u>비행 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 구축</u>	▪ <u>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 추가</u>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 특수분류심사 실시 ▪ 보호관찰 준수사항 개시교육시 필수적 마약예방교육 실시 ▪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등급에 따른 상시 혹은 불시 약물검사 실시 ▪ <u>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기움센터)에서의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과정 운영</u> ▪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사범은 교육종료 후에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상담과 치료 지원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 실태 상시 조사 및 모니터링 •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정보공유
효과적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 확대	▪ 외부전문기관 연계 및 활성화 ▪ 전문 강사 풀 구성 ▪ 민간 전문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여 교재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3)

02.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대처현황 : (3) 관련 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마약관련 예방교육 및 중독재활센터 운영 (현 3개 설치, 2024년도 14개로 확대 예정)
- 교육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청소년, 탈 북민,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교육 전문강사 양성
- 마약류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게 의무적으로 재범예방 교육 및 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문제가 있는 사람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사업

➔ 청소년 마약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 강사와 상담자가 부족

➔ 청소년 치료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충남권 중독재활센터 2023년 개소

02.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대처현황 : (4) 예방

● Caplan(1964)의 예방 모델 (Prevention model)

1차 예방 (Primary Prevention)

-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시작 또는 향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개입
-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 요인 제거와 보호 요인 강화에 초점

2차 예방 (Secondary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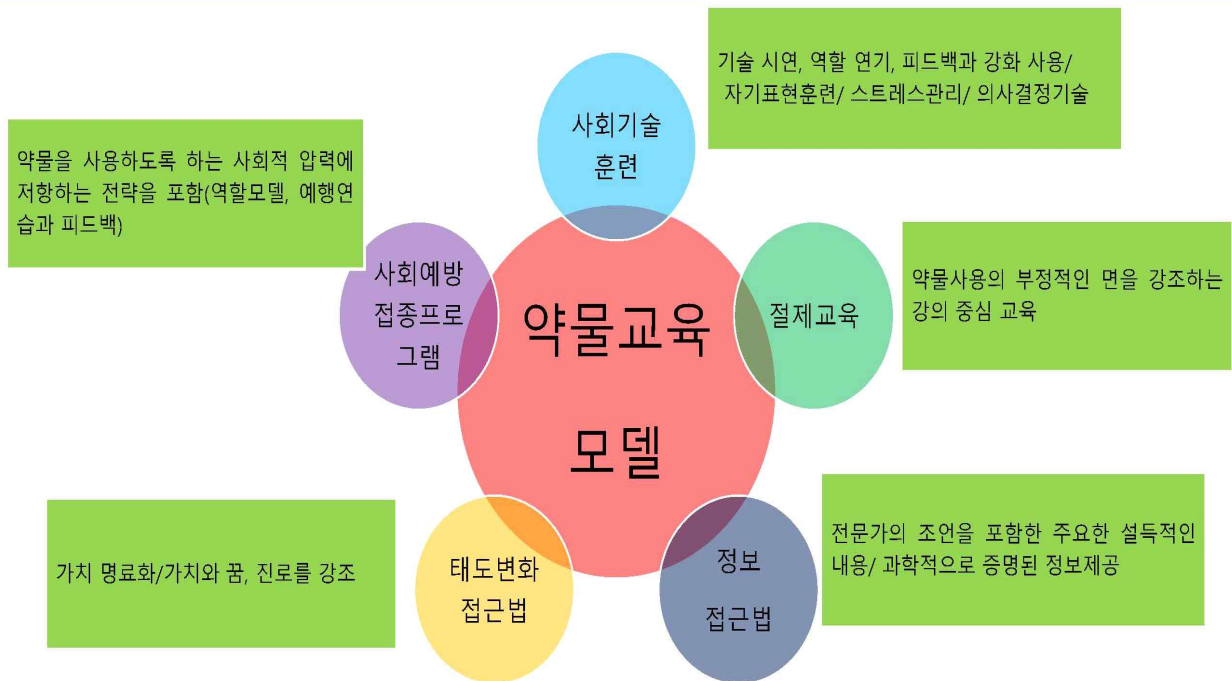
-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확산을 줄이는 **조기 개입**
- 마약류에 빠질 위험 또는 **잠재적 청소년 선별과 개입이 핵심**

3차 예방 (Tertiary Prevention) : 약물사용자

- 청소년 마약 문제가 발생한 후 삶의 질을 개선하고 증상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치료와 재활**
- 마약류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초점

출처: Caplan, G. (1964). *Principles of Preventive Psychiatry*. Basic Books.

02. 청소년 약물중독의 대처현황 : 약물남용예방교육의 모델- 콜롬보플랜 약물자문프로그램



02.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대처현황 : (4) 예방 교육

● 1차 예방 교육 실태

1.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함
- 흡연, 음주, 고카페인 식품에 관한 모든 내용 포함 : 약물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의 부족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강사에 위탁교육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보건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함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에 대한 전문적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2차 예방 대상인 잠재적 위험군과 3차예방 대상인 약물사용자에게는 효과성이 낮음

02.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처현황 : (4) 예방 교육

2.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표준안

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물중독 / 마약류 폐해 및 예방	◦ 제대로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 ◦ 내 몸을 위한 약!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2차시)	1-2학년 ◦ 약물에 대한 이해 ◦ 올바른 약물 사용법 3-4학년 ◦ 제대로 먹어야 약이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 제대로 약물을 먹을 수 있어요 5-6학년 ◦ 제대로 먹어야 약이지, 독이 될 수 있어요 ◦ 내몸을 위한 약,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 약물의 이해 ◦ 약물 오남용 위험성 ◦ 약물의 올바른 복용법 ◦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 비만 치료제 위험성 ◦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	◦ 작은 호기심과 습관에서 시작하는 치명적 중독 ◦ 약물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 약물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 약물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 비만의 원인 ◦ 약물의 올바른 복용법

출처 : 교육부(2016), 학교 안전교육 7대영역 표준안

→ 마약류 뿐 아니라 다른 약물에 대한 전반적 교육으로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해 부각하지 못함.

→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 있음.

02. 청소년 약물중독의 대처현황 : (5) 치료

● 3차 예방 교육 실태 : 마약류 투약자와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1. 대상: 소년원, 보호관찰소, 학교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이 주를 이룸

→ 실질적으로 잠재군 및 고위험군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음

학술연구정보시스템(RISS)에서 2000년도 이후 발행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 '청소년 유해물질', '청소년 마약'을 키워드로 186건이 검색됨.

이 중,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성인대상 마약 프로그램, 청소년대상 음주, 흡연예방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청소년의 약물에 관한 예방 프로그램 및 치료적 개입에 관한 논문은 총 3건

2. 내용 : 집단치료, 상담 프로그램,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룸

→ 약물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인관계와 사회적 측면, 가족과 문화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함

02.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처현황 : (5) 치료

3. 치료 모델: 질병/병리적 모델, 정보제공 모델, 정서중심 모델, 생활기술 중심 모델

→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모델, 청소년의 약물중독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모델의 필요성

- 청소년 약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와의 적개심, 단절, 분노 등에 대한 대처기제
- 부모의 약물 사용이나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대한 허용

→ 부모 교육의 중요성

→ 전문 인력에 의한 부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모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약물 사용자에서만 원인을 찾는 것임)

→ 가족중심적 약물치료 시스템이 필요

02.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대처현황 : (5) 치료

4. 청소년 대상으로 한 치료 시설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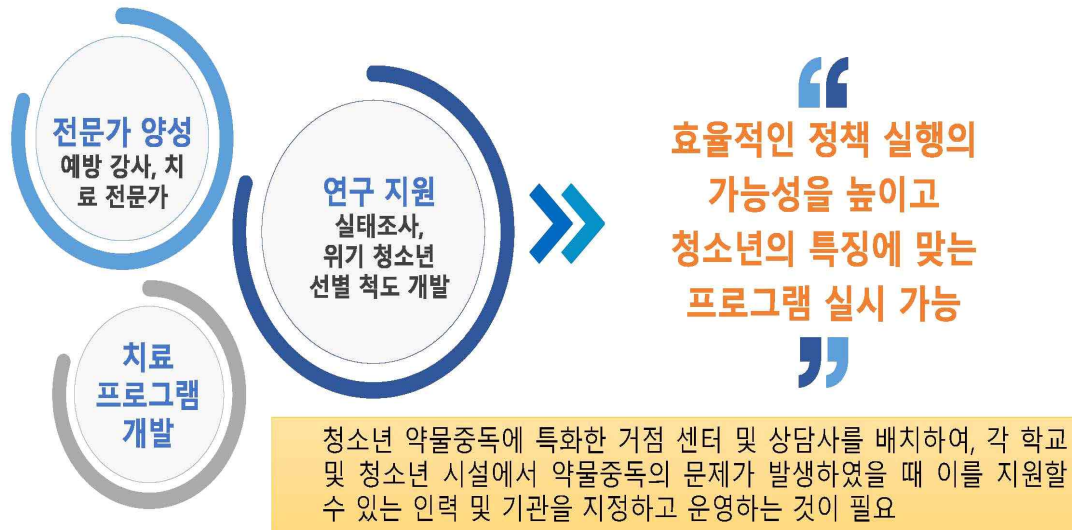
- 마약류 치료 병원은 성인 중독자를 위한 시설이며, 치료프로그램들도 성인대상자를 위한 것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실시되는 기소유예 교육 및 가족프로그램, 개인상담 등은 주로 성인대상자를 위한 것임 : 약물중독상담전문가 교육과정 커리큘럼 및 기소유예 교육 안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

→ 청소년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특화된 기관의 확대

→ 잠재적 위험군 및 고위험군을 청소년 약물중독 상담가 양성 요구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 가. 정책적 대안

충청남도 차원의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및 거점 기관 운영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 가. 정책적 대안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조례 개정

- 충청남도 중독관련 조례 : <충청남도청소년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법률 제5272호, 시행:2022.10.18.)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에 노력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법률 제 6217호, 시행: 2019. 6.18)

청소년의 약물중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점 기관 및 전문가를 배치하여 예방 사업 및 치유,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제5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
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제6조(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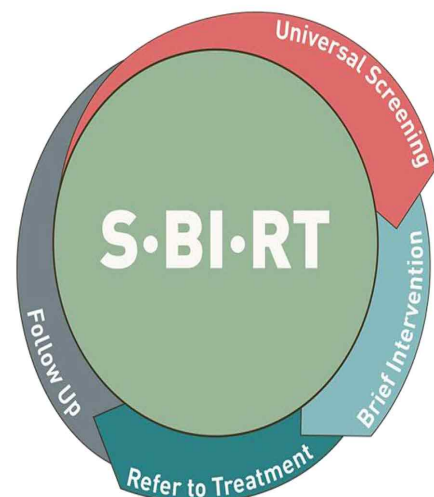
1.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제7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 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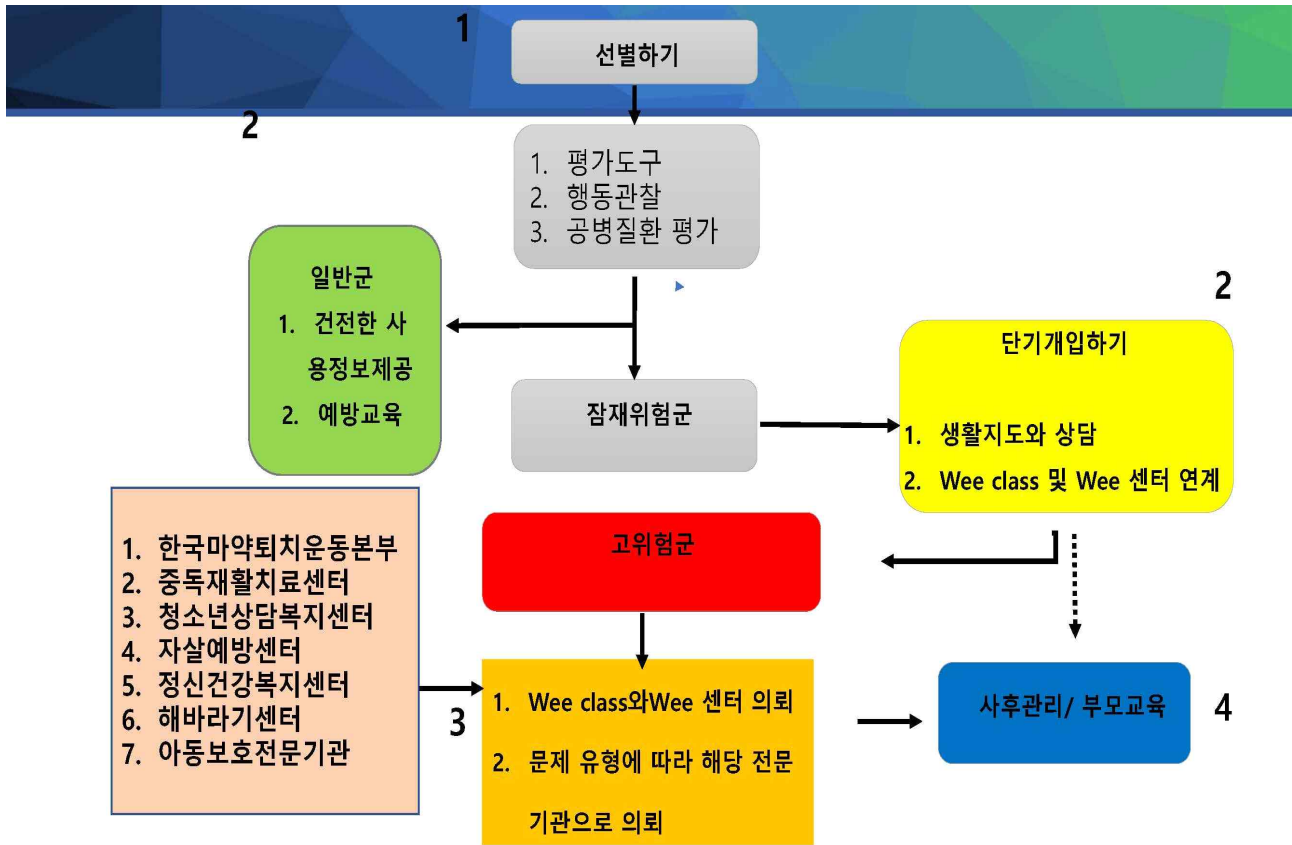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나. 교육적 대안

1차 예방의 주체인 학교의 기능 강화

-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모듈식으로 구성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내에 약물중독 예방 내용 확대
- 전 교직원의 약물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 잠재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학기초의 약물 중독 선별검사 실시 및 연계 (wee-class의 기능강화)
- Wee-class 상담사의 중독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확대



출처. <https://www.schoolhealthcenters.org/resources/student-impact/substance-use/sbirt-quick-guides/screening/>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나. 교육적 대안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교사용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과 교사직무연수 확대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 *SBIRT-IAD적용한 표준화된 매뉴얼 적용

직무연수 및 교육

- 현장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및 교육의 기회 제공

약물 사용과 관련된 불법 문제 위기개입
매뉴얼

위기개입(중독, 자살시도, 자해 등)을 위한
대처 매뉴얼

중독에 대한 원리와 이해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약물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가이드

*SBIRT-IAD: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 - Internet Addiction Disorder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나. 교육적 대안

부모, 교사, 전문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부모, 교사, 전문가들의 협력

- 청소년 약물중독은 복합적 원인으로 촉발됨
- 부모와 교사, 전문가들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부모 협의체 구성

- 배움, 상담 치유, 사회기반, 소통 참여를 기반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다. 치료적 대안

잠재위험군 및 고위험군을 위한 치료지원의 확대

중독 전문상담 인력 확대

- 잠재위험군과 고위험군 치료를 위한 전문 상담사 확대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병원 연계한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 지원

자해 및 자살 예방 심리치료 지원

고위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심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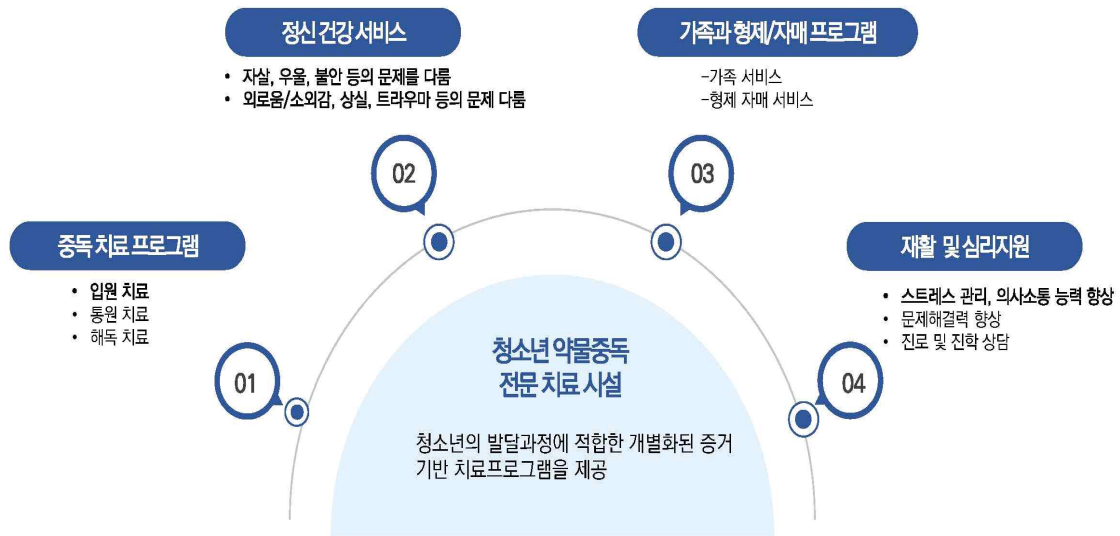
- 획일적인 치료 및 프로그램이 아닌 고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트라우마 (학폭, 가정폭력 등) 심리치료 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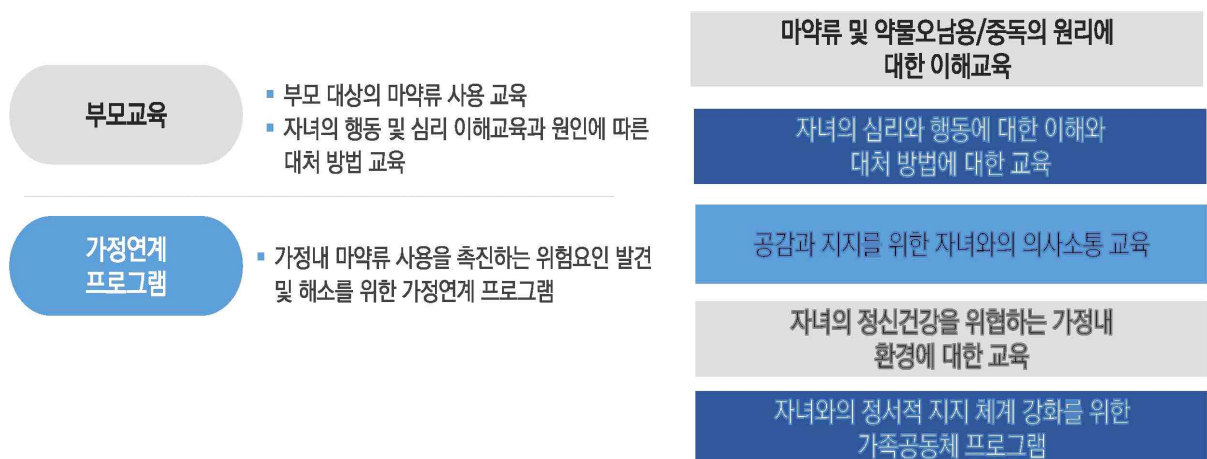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다. 치료적 대안

청소년 약물중독 전문치료 시설확대 (병원 및 거주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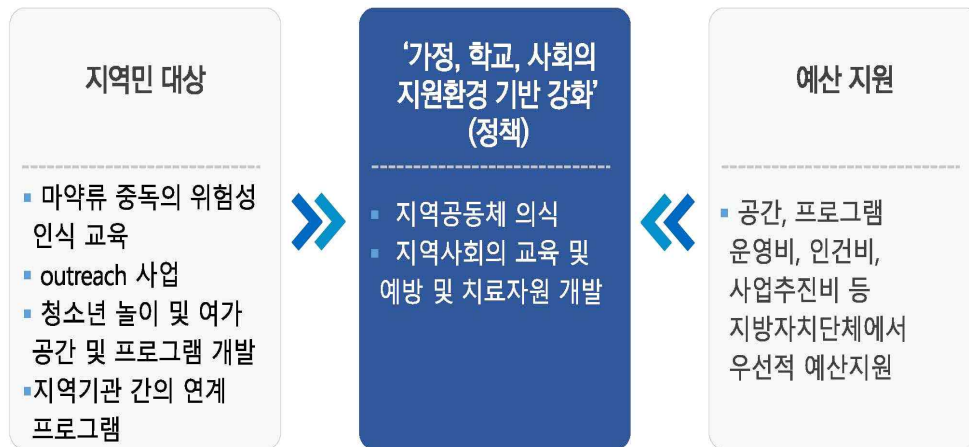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다. 치료적 대안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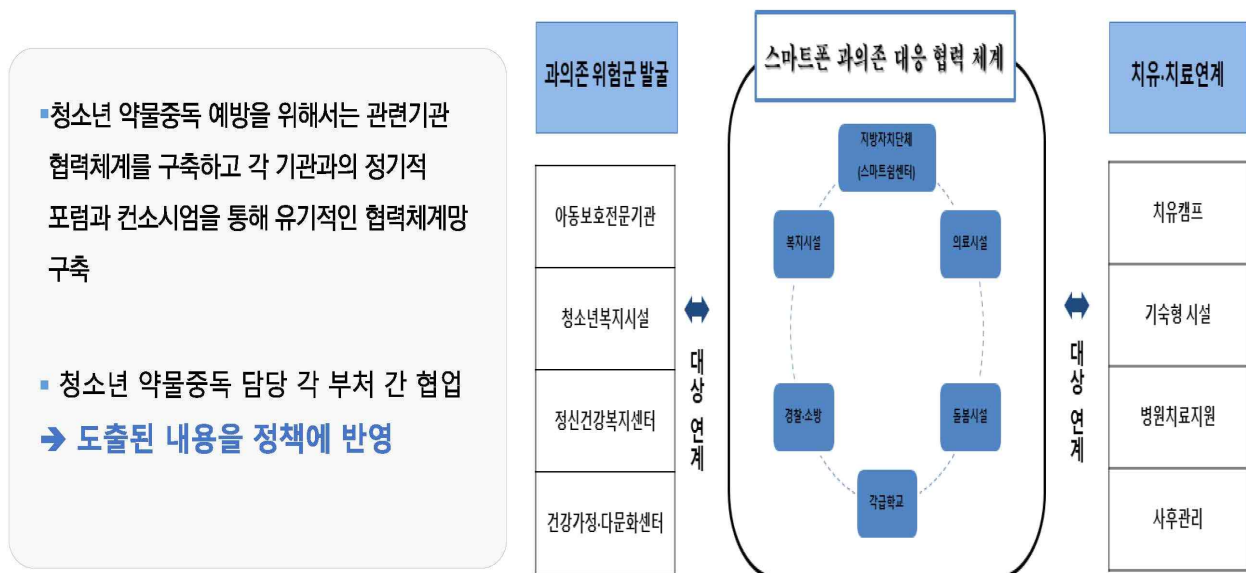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라.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협력방안

지역 협력체 구성 및 연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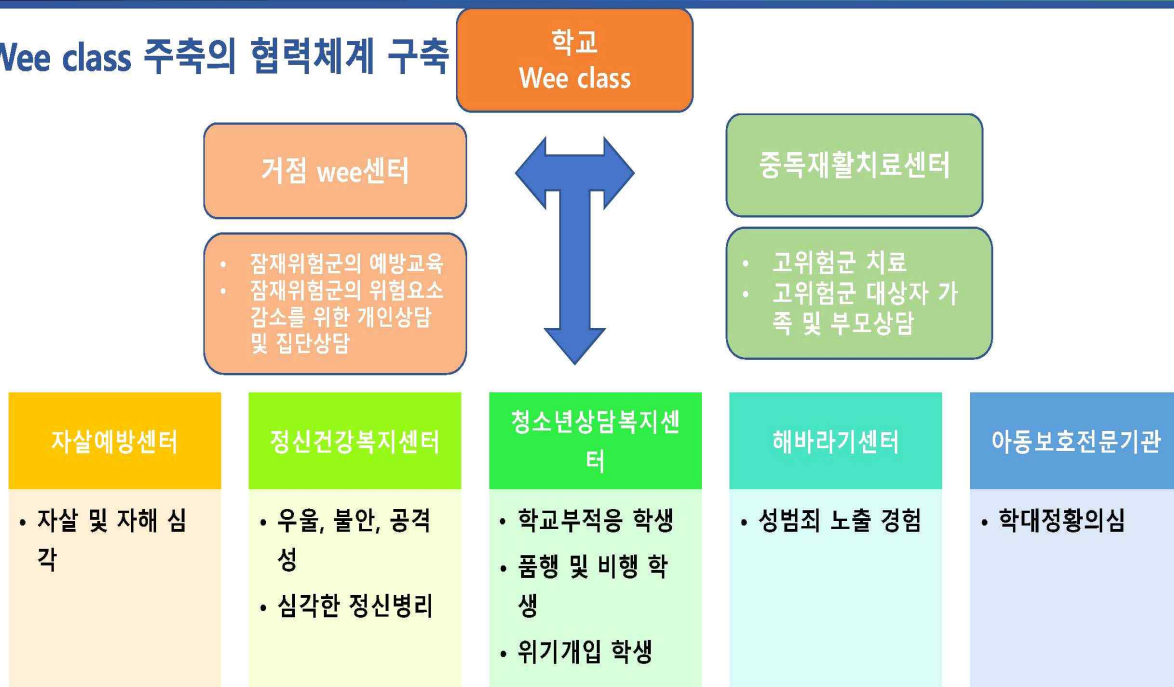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라.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협력방안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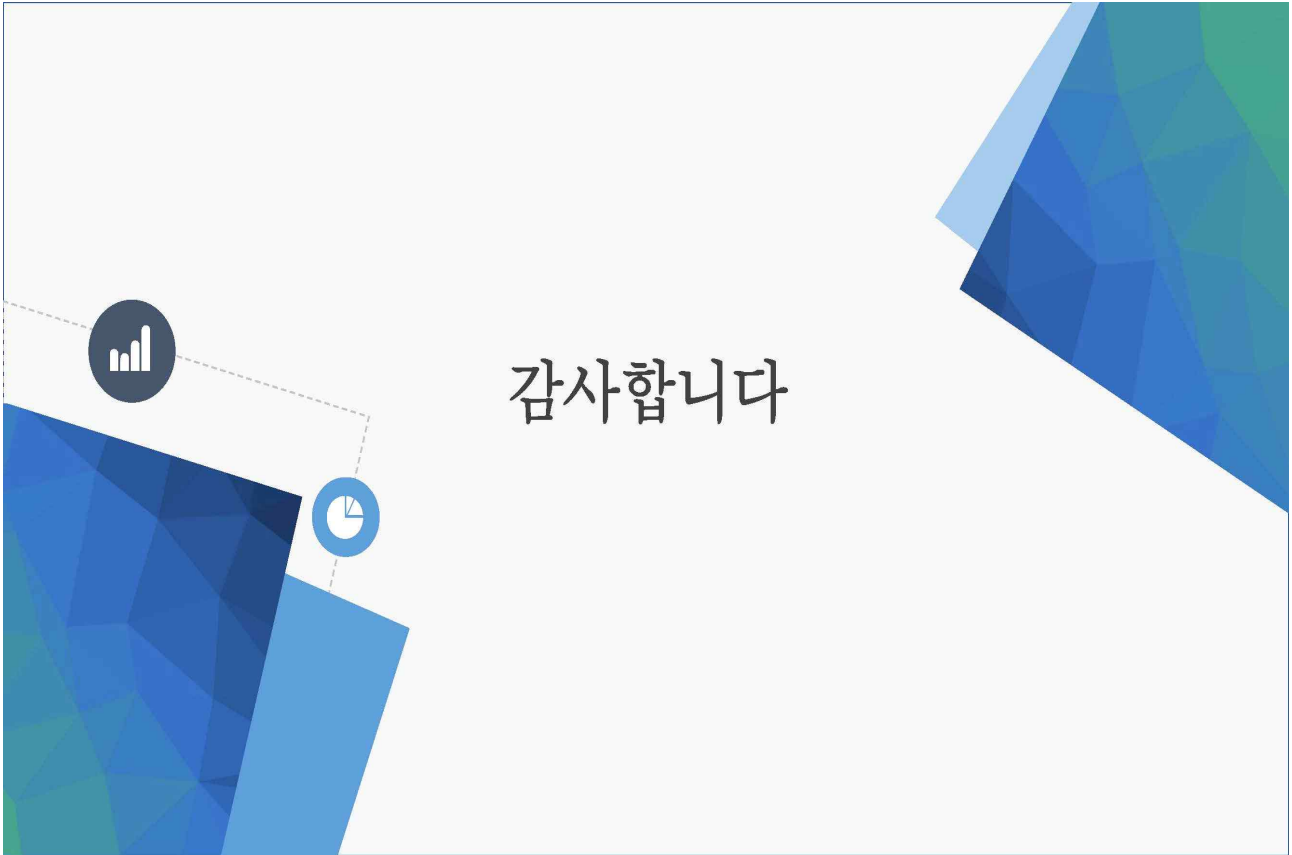
04.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라.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협력방안

Wee class 주축의 협력체계 구축



참고문헌

- 검찰청. (2022). 2021년 마약류범죄백서. 서울: 저자.
- 국립부곡병원. (2023.1.3.). 약물중독. Retrieved from http://www.bgmh.go.kr/bgmhboard/bgmhHmView.jsp?menu_cd=BM_02_03_00_01&no=317
- 메디컬투데이 (2023.1.26).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만 1만2387명...제조사범 5년 새 3.7배 ↑. Retrieved from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273725973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4.21). 소년법.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85%84%EB%B2%95#undefined>
- 안세익. (2023.1.3.). [마약분야 전문자료]마약 은어 1 Retrieved from <https://mblognaver.com/ahnsaik/22128866424>
- 이은영, 전연규. (2022). 청소년 신종마약사범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3), 85-102.
- 최은영. (2009).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특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총론 : 초중고 강사용 교재. 식물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폐해 알리미. (2023.1.3.). 마약류 정보. Retrieved from <http://antidrug.drugfree.or.kr/page/main01.php?midx=177>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지정토론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현황 및 예방

김 혜 린 과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팀)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현황 및 예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현장 중심으로)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 시작하는 말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마약문제로 위기에 놓여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한다. 이제는 특수계층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마약류 범죄는 높은 중독성 및 재범률(약 35%) 등을 고려하여, 예방 및 재활 기능도 마약류 대책의 한 축으로 정부에서 내세웠다.¹⁾ 마약류 사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현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38명이었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가 22년 481명으로 236.4% 증가한 수치이다. 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및 회복은 많은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마약류 중독에는 예방이 무척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표 1-1. 마약류사범 증가 추이

(단위 : 명)

구분	2017	2021	2022
마약류사범(합계)	13,906	16,153	18,395
10대 마약류사범	119	450	481
20대 마약류사범	2,112	5,077	6,285

* '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마약류 섭취

표 1-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중 10대 마약류사범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9세 이하	2명(0.4%)	10명(0.9%)	9명(0.8%)	6명(0.4%)	24명(1.5%)
총 의뢰자	478명	1,174명	1,179명	1,496명	1,641명

1) * 대통령, 범정부 마약범죄 관련 종합대책 추진 지시(국무회의, '22.10.11)

** 대통령, 전사회적 '마약과의 전쟁' 결실,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마련(총리 주재회의, '22.10.24)



2. 국내 마약류 중독의 동향과 청소년 마약류 사용의 현황

국내 마약류 사범의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마약류 사범의 초범의 증가와 저연령화 둘째, 비대면 거래의 증가 셋째, 의료용 마약류 문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마약류 사범의 동향이 청소년 마약류 사용의 증가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 사용이 용이한 청소년들이 SNS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들의 접근이 쉬워지고, 그에 따른 구입장벽이 낮아졌다. 또한 저렴해진 마약류 가격과 국제 우편, 특송화물을 통해 구매 경로도 다양해졌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문제와 맞물려 청소년 마약류 중독의 문제는 더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사용 청소년 의뢰 사례
- 외국 유학중 대마초를 사용하다 기숙사에서 적발되어 부모에게 알린 후 국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 -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 스테로이드제를 구입 후 불법 마약류 까지 사용하게 되어 기소 후 보호관찰중 보호관찰소에서 연계 -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단기간에 살을 빼고 싶어 SNS에서 검색을 하자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게 됨.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디에타민을 5알구매 하여 경찰청에서 연계

10대의 펜터민, 공부잘하는 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용 범죄 급증하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사범의 증가는 주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펜타민 등 다이어트 약, 프로포폴 졸피뎀 등 수면제, 단백동화호르몬을 활용한 몸짱 약, 소위 공부 잘하는 약 등 ADHD 치료제 남용을 들 수 있는데 합법적인 의료용 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한 중독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20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현황²⁾을 살펴보면 10대는 ‘20년 3595만건, 21년 4228만건, 22년 4932만건으로 가파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은 정확한

2)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승인통계)

지식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 받았을까?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중독재활센터에 23년에 의뢰된 마약류 사용 청소년(46명) 중 32명(69.6%)이 처방약물에 의한 적발로 의뢰된 청소년들이다. 이 청소년들을 상담해보면 처방약물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의 보호자조차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또한 2022년 비교적 마약류 사용의 초범인 교육조건부기소유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처음 마약류 사용의 이유를 조사했을 때, 35.8%가 호기심에 의한 사용이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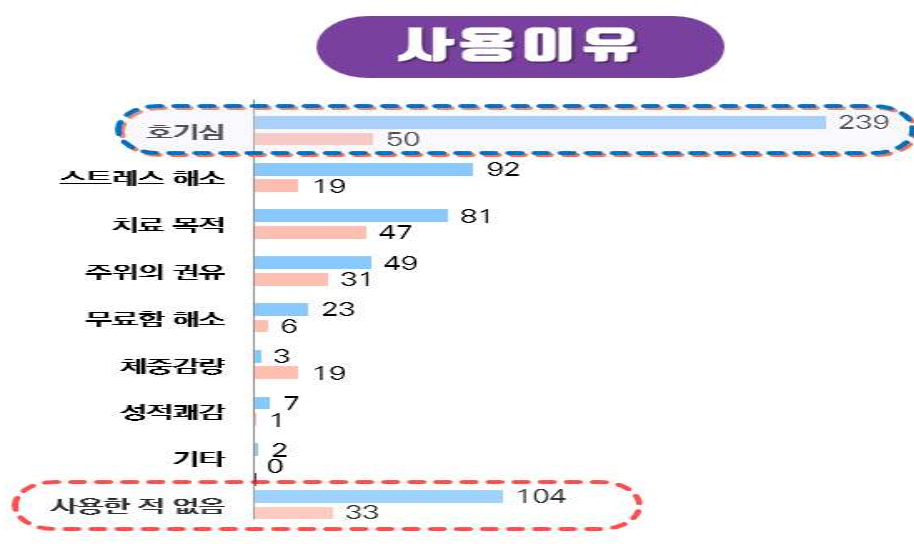


그림 1-3. 교육조건부기소유에 대상 마약류 사용이유조사

이들 중 청소년기에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내에는 청소년의 대상으로 하는 정식 마약류 실태조사는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다. 2023년 복지부에서 실시한 만 14세 이상 만 24세 이하 일반 청소년 1,83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마약류 온라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3명(1.3%),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번이라도 약물을 의사의 처방없이 또는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107명(5.8%)로 마약류 사용 or 약물을 의사 처방없이 또는 처방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18명(6.4%)였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을 막는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마약류는 너무 쉽게, 만연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3. 청소년마약류 사용의 예방

위에서 살펴본 심각성에 비해 현재 국내의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의 현실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 마약류 강사가 학교에 나가서 마약류 교육을 하는 것은 전국 학생수의 5%가 채 안되고, 국가에서 책정한 마약류 전문 예방교육 예산은 그보다 적다. 또한 마약류 취약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다문화 및 탈북가정 청소년은 그 기회조차 없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내년부터 전국 유아, 초·중·고교생 대상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수혜율 대폭 확대 추진계획이다. ('23년 5% → '24년 33.4%) 단계적으로는 일년에 최소 한번은 전문적 마약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마약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하여 취약계층의 예방교육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국외의 예방교육 사례를 통해 국내 마약류 전문 예방교육의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다.

□ 국외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현황

1) 미국의 약물남용저항교육(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DARE)

- 마약 남용 저항 교육(DARE)은 경찰관이 주도하는 일련의 교실 수업으로 어린이(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게 마약 없이 지내고 또래 압력에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음
- DARE는 198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약물 예방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주요 커리큘럼은 일주일에 한 번 약 1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함. 일반적인 DARE 프로그램은 17주 동안 지속되며 약물의 영향,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또래의 압력에 저항하는 기술, 스트레스 관리 및 약물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포함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음.
- DARE 프로그램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번 재구성되었음. (조). 원래의 DARE 커리큘럼은 "Take Charge of Your Life"로 나타나 최근에 DARE는 "Keepin' it REAL" 커리큘럼을 채택하였음. 새로운 커리큘럼은 기존 프로그램보다 더 상호 작용적이고 다문화적으로 설계되었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저항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2) 미국 국립 약물남용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 NIDA는 학부모, 교사, 학생을 위한 약물 남용 예방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제공함. 이 웹사이트에는 약물 남용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팩트 시트, 동영상, 수업 계획과 같은 무료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음.

3) 마약 없는 어린이를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Drug-Free Kids)

- 마약 없는 어린이를 위한 파트너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 보호자, 교육자를 위한 리소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임. 이 웹사이트에서는 육아 팁, 약물 예방 토크,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헬프 라인 등의 무료 리소스를 제공함.
- Drugfree.org: Drugfree.org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예방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또 다른 비영리 단체임. 이 웹사이트에는 부모와 교육자가 청소년의 약물 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모 및 교사 가이드, 동영상, 대화형 도구 등 다양한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음

4) 미국 마약통제정책국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NDCP)

- ONDCP는 미국에서 약물 사용과 그 결과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연방 기관임. 이 웹사이트에서는 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리소스를 비롯하여 약물 남용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팩트 시트,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의 교육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음

4. 제언

첫째, 각 학령별에 맞는 표준화된 교육교재와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각 부처에서 각자의 자료를 기반한 마약류 교재들과 강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마약류 교육은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유아부터 고등까지 각 학령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다각적 접근의 마약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마약문제는 성인의 마약문제와는 또 다른 복잡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생리적,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안전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마약류 예방교육은 전국민의 인식개선과도 관련성이 깊다. 현장에서 만난 마약류 사용청소년의 보호자 및 교사, 지역사회 성인 대부분도 마약류에 대한 인식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청소년 주변의 성인들에게도 마약류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one-stop system을 구축하여 예방-선별-재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길 기대해본다.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지정토론

약물중독의 치료방안에 관하여

맹 혜 영 센터장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약물중독의 치료방안에 관하여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장 맹혜영

1. 시작하는 말

최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과 폐해에 관한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마약류의 약물은 강력한 물질로 한 번만 사용해도 뇌가 중독되어,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전전두엽이 만 25세 이후 온전히 형성되기에, 마약류의 사용은 청소년의 뇌에 극심한 영향을 끼쳐 사고, 감정, 판단 등에 많은 손상을 주게 된다. 또한, 마약류를 사용한 청소년들은 중독물질만 찾게 되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특성상 마약류 사용을 같이 하게 되어 급속도로 확산되며 그 폐해가 성인보다 더 심각함을 보도된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18,395명 중 충청권 마약류 사범은 1,568명(8.6%)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인천·경기 5,559명(30.2%), 서울 4,640(25.2%), 경상권 2,494명(13.6%) 다음으로 높다(2022,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18년 143명, 19년 239명, 20년 313명, 21년 450명) 23년 7월 말 기준으로 550명(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으로 지난해 481명을 크게 넘어섰다.

2. 치료 방안 및 방향성

가. 증상에 따른 개입

(1) 단기 개입 프로그램(1박 2일)의 활성화 :현재 중앙(서울) 중독재활 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2) 상담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실시

예)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치료프로그램: 고위기 상황 인식 및 대처방법 훈련프로그램(딜레마 존),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대인관계 훈련), 직업 탐색프로그램(꿈을 찾아 dream), 외에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이 있다.

나. 마약류 문제 청소년 발굴

충청권 지역의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방문)의 확대화 :기존 2곳 기관(대성여중, 파랑새휴먼지역아동센터)실시하였고, 내년도 계획에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많은 횟수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효광원(보호처분 6호 소년원생들 거주)에 찾아가는 집단상담이 계획되어 있다.

다. 시범사업의 확대화

현재, 시범사업으로 마약류 문제 24시간 콜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상담의 확대화 및 현재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범운영을 법제화하여 검찰, 복지부, 식약처, 법무부, 한국마퇴 재활센터가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중독자를 치료 세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1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상세내용
상담프로그램	개별 심리상담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중독상담	중독 회복상담 서비스
	집단상담	중독 전과 후의 변화, 과정속의 나
	심리검사	불안, 우울, 강박, 대인관계 어려움 등 심리상태 확인
재활프로그램	딜레마 존	고위기 상황 인식과 대처방법 훈련
	대인관계 훈련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꿈을 찾아 DREAM	적성·흥미·욕구 등 이해 및 직업 탐색
활동프로그램	내가 해냄	미술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표현력 증진
	다함께 요리친구	요리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응력 회복
	특별 프로그램	야외 활동을 통한 풍부한 학습경험
가족프로그램	가족 교육 프로그램	약물에 대한 교육, 공동의존, 대처법 등
자조모임	N.A 모임	회복경험, 재발 대처방법 등 회복모임
	가족 N.A	중독자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고 회복원칙 실천

3. 맺는 말

마약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이 확대되어야 하며,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확인하는 즉시 치료병원이나 중독재활센터에 보내 적절하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으면서 회복의 길로 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중독재활센터에서는 중독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평가하여 증상의 중증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연계, 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하여 심리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중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그리고 누구나 한 순간의 호기심과 실수로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 범죄자라는 낙인과 편견으로 마약을 사용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마약류보다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삶과 문화가 형성되어 마약류에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기 않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4년도 예방사업으로 45억원을 국가 예산으로 마련하였으며, 10대 청소년 30%이상에게 마약류 예방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독재활센터 현재 3곳에서 모든 시,도 단위로 확대 설치 운영하기 위해 24년도에는 1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중독재활센터가 총 17개의 기관이 되어, 전국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문제를 중독재활센터가 구심점인 되어 마약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복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지정토론

약물중독의 예방정책 방안

전 희 진 장학사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약물중독의 예방 정책 방안

(학교에서의 예방교육 중심으로)

전희진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1. 시작하는 말

다크웹·SNS·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및 저렴한 가격 등으로 인해 10~20대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기심에 온라인 구매로 마약을 손쉽게 접한 10대가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약 유통까지 가담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18명으로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존의 ‘약물 오용과 남용의 예방’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과 남용의 예방’으로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내용이 2019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학교에서는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한 기관에서 실시한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현황,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마약류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위협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위협이 된다’ 56.7%, ‘위협이 된다’ 29.7%, 보통이다 8.7%, ‘위협이 되지 않는다’ 2.7%,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2.2%로 답변했다. 청소년 마약 구매·판매·제조 및 투약하면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 85.7%, ‘모른다’ 14.3%로 응답했다. 마약류 예방교육 후 마약류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등 긍정적이 응답이 90.0%이었고, 마약류 예방교육 중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마약류 종류에 따른 해로움’ 60.4%, ‘중독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피해’ 58.7%, ‘마약이 가족, 친구와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 44.2%, ‘마약류 범죄에 따른 불이익과 법적 처벌’이 39.6%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체험형 수업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영상 시청, 강의식 수업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마약류 예방교육의 실시자는 보건교사가 81.6%, 담임교사 30.8%, 외부강사 29.5%, 관련 교과 교사 19.3% 순

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비중이 다른 학교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교육 관련 연수 이수에 관한 질문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이수’가 68.5%, ‘최근 3년 이내에 이수’에 5.4%, ‘현재 이수중’에 9.6%로 응답했으며, ‘연수 받은 적 없음’에 응답한 비율도 ‘16.5%로 나왔다.

청소년 약물중독의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중독의 위험성과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예방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원이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 대상 전문성 강화 연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약물중독 위기 학생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단위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전담부서 구성이 요구된다.

2. 학교에서의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현황

가. 관련 근거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학교 안전하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실시] 제1항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교육부고시 제2023-33호, 2023. 10. 16., 일부개정)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기당 2회 이상			
[별표1] 교육시간*.횟수	5	5	6	7

[별표2] 교육내용	*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약품 만 지거나 먹지 않기	*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 중독성 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	--	---	---	---

3)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공규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구분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별표6] 교육시간/횟수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10시간 / 3개월에 1회 이상		
[별표6] 교육내용	*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 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 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 *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 방법 등	* 향정신성,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 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 규정 등

4)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예방교육) ①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상담)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2023년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 현황

학생 대상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위의 관련 근거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보건교육, 안전교육, 담임시간,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에는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련 근거의 시간, 담당자의 교육 범위 등의 해석이 모호하여 학교마다 운영 시간 및 내용이 다르며 교육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이 개정되어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명시화된 것이 2023년 10월이기 때문에 2024년도가 되어야 관련 시간이 교육과정에 명확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실시자 측면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대상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모든 학교 담당교사 연수를 4월에 실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각 학교의 예방교육 담당은 보건교사,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으로 다양했으며 학교 내의 교원이 예방교육을 실시했을 때 가장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실시자 대상 연수가 부족하여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중독현상은 현 시대 상황 속에서 심리·정서적인 결핍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방교육과 상담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다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올바른 성장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구의 감소, 인터넷 발달, 비대면 활동 강화 등 기존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으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또한 각 업무별 전문성은 강화되었지만 약물중독 예방은 단일 분야가 아닌 교육, 상담, 치료 등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 관련교과 연계 약물중독 예방교육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평가, 교과별 협의회, 부서별 협의회, 교육과정 수립 주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약물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모든 교과 및 교육활동에서 약물의 안전한 사용, 약물 중독의 위험성 및 피해, 긍정적 지원체계 등에 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교육, 안전교육 등의 관련 교과 분석과 협의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예방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연수가 일반과정, 심화과정으로 진행되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위기 학생 상담 강화

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의 전문가 강의에 따르면 학생들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하는 이유는 호기심, 권유, 돈 등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정서·심리적인 결핍에 기인한다고 한다.

물질적 풍요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업 및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강한 정신적 지지가 없는 경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 강화가 절실하다.

다. 전문기관 협력 및 통합 지원 부서 마련

마약류 등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 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전문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방교육,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연계와 협력이 어렵고 사안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유가 안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 담당자의 역량 강화,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치료 연계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5. 맺는 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대응체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약물중독은 치료나 재활이 아주 어렵다고 하니 사전에

위험성과 피해를 알리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대상자와 업무관련자,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지정토론

청소년 및 청년기 약물 중독예방 및 개입 정책에 대한 제언

허 난 설 교수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청소년 및 청년기 약물 중독 예방 및 개입 정책에 대한 제언

허난설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1. 한국 청소년 및 청년기 약물 중독 실태

최근 여가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7140명 중 마약류 진통제(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은 10.4%, 환각성 물질인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인 것으로 조사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물론 동일조사에서 청소년의 음주 경험율이 13.7%, 흡연 경험률이 4.2%인 것에 비하면, 펜타닐 패치의 사용경험 10.4%라는 결과는 조사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마약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의 통계에 보다 확실히 드러난다. 2022년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2018년 대비 45.8%가 증가하였는데, 이때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전체 59.8%(약1,0853명)로 청년층의 약물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성년자는 2022년 기준 481명(약 2.61%)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는 낮은 비율이나 전년대 대비해 보았을 때(정경훈, 2012.04.30.)는 2017년 119명에서 304% 증가한 추세이다.

최근의 약물 중독 문제의 경향을 살펴보면 그간 유통되었던 마약이 필로폰, 대마, 헤로인과 같은 생산 자체가 불법인 마약에 대한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식욕억제제(별칭 나비약, 디에타민)나, 진통제(별칭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ADHD 처방 약물(별칭 공부 잘 하는약, 메틸페니데이트), 졸피뎴(우울증약), 케타민(마취약) 등 의약품으로 개발된 향정신성의약품들이 주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약물 중독이 불법적으로 생산된 자연 및 합성 마약의 남용 문제가 주요했다면, 최근에는 의료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오용(drug overuse)하면서 본래의 목적과 방법에서 벗어난 약물 사용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975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국의 약물 중독률을 약물 종류별로 추적한 리포트에 따르면(Johnston et al., 2021), 2000년대 이후 특징을 의료진의 통제를 벗어난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용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미국의 젊은 세대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료진이 권고한 방법이나 의료 목적 이외로 오용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다고 보았는데, 한국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크웹과 SNS를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점 역시 청소년과 청년층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마약 판매책과의 대면 만남이 없어도 된다는 점, 마약을 접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더라도 이를 재고해 볼 수 있는 시간적 기다림이 짧아졌다는 점 역시 청소년 및 청년층의 마약 중독 문제가 크게 증가한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및 청년기 약물 오남용의 동기

약물 오남용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인 이외에도 개개인이 약물에 중독되는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술이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일종의 물질 의존(substance abuse)으로 의존도가 심할수록 생리적으로 내성 및 교차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과 후금단 증상, 강박적 사용에의 강력한 충동이 생기는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질의 과다한 사용이나 마약류를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당위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물질에 점차 스스로 의존하게 되는 동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약물을 처음 시도하는 동기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청소년이나 청년기 담배나 음주, 대마 사용 등은 충동적 동기(예: 친구나 지인이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호기심으로 시도해 보는 것) 또는 사회적 동기(예: 지인들과 어울리는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신성만 외, 2019). 약물의 첫 번째 실험적 사용 이후 개개인마다 약물마다 특정하게 나타나는 환각효과, 각성효과, 긴장완화 효과 및 함께 흡연, 음주, 마약 투약 행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로부터 사회적 수용을 느끼는 것이 약물 사용의 강화로 작용한다.

이후 혼자 있더라도 일상 문제와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약물을 스스로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예: 식후나 퇴근 후 습관화된 음주나 흡연), 정서적, 정신적 자극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상황적 동기(예: 갈등이나 다툼 이후 충동적인 약물 사용에 대한 통제감을 잃음)가 증가하게 되면서, 점차 약물 사용 자체가 목적인 습관적이고 강박적인 약물 의존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신성만 외, 2019). 실험적인 약물 사용 단계에서 점차 약물에 대한 통제성을 잃는 의존 단계로 발전하는 데에는 개인의 정서적 문제, 심각한 정신적 외상 경험, 정신질환 유무, 약물을 사용하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지속적 상호작용, 소속된 문화의 약물에 대한 관대성(Bucholz 1999; Compton et al. 2007; Homberg et al. 2014)과 같은 변인이 높은 관련을 보인다.

3.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적 개입

약물 중독자들은 행위 중독과 달리 DSM-V등에서 진단명을 부여하고 있고, 금단

현상과 영양 부족, 갈망과 같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과 내원이나 입원을 통해 생리적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리적 부분에 대한 치료의 전후 또는 병행해야 하는 심리상담적 접근은 그 초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김한오(2016)는 동기면담적 접근, AA모임과 같은 치료 공동체, 인지행동 치료와 중독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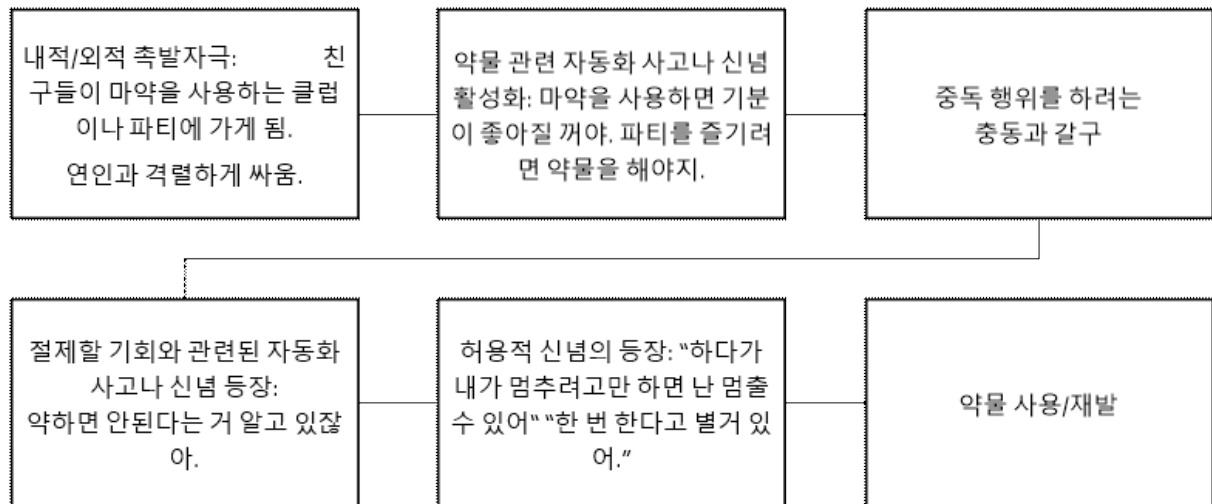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첫째,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why, 동기강화 상담적 접근), 둘째,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하며(what, 12단계 AA모임과 같은 치료공동체), 셋째, 기차나 승용 등의 이동방법을 정해야 하고(how, 인지행동적 접근), 넷째, 이상의 여행 이유, 목적지,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What, 중독에 대한 교육).

1) 동기 강화적 접근: 물질중독과 행위중독과 같은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는 원인제거적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습관’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중독적 행위에 대한 개입은 근본적으로 내담자의 증상을 치료한다기 보다, 내담자가 꾸준히 조절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입의 전 과정에서 무엇보다 내담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동기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통적으로 Miller(1982)의 동기 강화 상담과 같이 내담자를 비난하지 않고, 내담자들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체험적으로 자각하도록 촉진하고, 변화에 대한 자기 효능감 및 변화를 우선 순위를 두는 준비성을 증진시키는 상담 기법들이 개입 전반에 사용된다. 최근에는 마음챙김적 접근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 모니터링 기능을 증진하고, 신체적 자각을 강조하는 접근들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2) 치료 공동체 접근: 약물에 중독되는 과정에서 약물 사용을 자극하고 관대화하는 공동체와의 사회적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듯이, 약물 사용을 줄이고 이후 회복 및 재활 단계에 있어서도 변화 의지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지지가 심리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35년 미국에서 시작된 A.A.(Alcoholics Anonymous)와 같은 자발적 치료적 공동체인데, A.A.를 시작한 익명의 창시자들은 일종의 공동체 규칙이자, 변화의 단계를 묘사하고 있는 12단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A.A.와 같은 약물 중독자들을 위한 익명 기반 치료적 공동체는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깊게 뿌리내려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으나, 국내에서는 주로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이나 중독재활센터 등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인지행동적 접근과 심리교육: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약물에 대한 충동과 갈망을 일으켜지고, 이를 행동화 하는 과정에는 그림 1과 같이 자극에 대한 자동화 사고, 약물에 대한 기대 신념, 약물 사용의 결과를 부정하게 만드는 허용적 신념, 약물 획득에 대한 도구적 전략과 같은 여러 인지와 행동이 수반된다. 인

지행동적 접근은 이러한 과정 전반에 교육과 분석을 통한 자기 모니터링의 증진, 인지 내용과 과정 재구조화 개입과 정서조절과 변화 촉진을 위한 행동적 전략들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표1. 약물 사용에 대한 인지행동 이론 모형, Liese & Tripp, 2018>

4. 청소년 및 청년층의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정책 제언

1) 마약류 관리 및 감시 제도의 보완

한 사회의 마약 중독 문제는 무엇보다 불법적인 공급과 유통이 사법과 보안 시스템을 통해 차단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있다. 예컨대, 미국은 최근 마약 중독 사망자의 폭발적 증가를 ‘오피노이드 위기(Opinoid crisis)’로 부르는데, 이는 헤로인이나 몰핀과 비교해도 50-100배의 중독성을 보이는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합성 마약의 불법 유통이 주요한 원인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펜타닐의 불법 유통의 주요 원인으로 비윤리적 제약회사의 영향, 약물 사용자에 대한 약한 규제, 의료진의 과다 처방을 제시한 바 있다(Lancet Regional Health_America, 2023. 07).

한국 역시 되돌리기 힘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약 뿐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된 사법 체계를 최대한 촘촘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마약류를 자가처방한 의사는 2023년 8월 기준 과거 3년간 8000명에 달하였으나(청년의

사, 2023.09.19.),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사후 보고 방식으로 인해, 한 사람이 하루에 마약류 의약품 10개 종류 4763정을 처방받은 사례 등도 지속 보고 되는 등(청년 의사, 2023.10.11.),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마약 신고 포상제는 관세청에서 실제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를 신고하는 제한적인 범위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마약의 유통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확대하여 SNS 상의 마약류 의약품 유통 의심 광고나, 약국에서 지나치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의심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2) 부서간 협력을 통한 위기 청소년 심리상담 기관 운영 문제 개선

최근 미성년자 중독자들의 경우 별도의 재활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입어 최근 대전에 충청권 청소년 맞춤형 마약중독 센터가 개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전국매일신문, 2023.10.26.). 실상은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는 성인 대상 센터를 포함하여 3곳이고, 이 중 대전 센터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력 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차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는 뉴스(연합뉴스, 2023.8.17.)가 나오고 있다. 중독재활센터의 소관부서는 식약처이고, 주요 인력 구성원은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다. 이러한 센터들이 개소되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지속적인 안정적인 운영 면에 있어 그간의 여타 기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독재활센터(전 연령대 대상 약물중독 재활기관)가 지역사회에 개소되면 시군 단위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에 관여되는 주요 기관만 교육부의 Wee센터(지역교육청)와 Wee클래스(단위학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9세부터 24세 대상, 학교밖 청소년 포함),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전 연령대의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라는 기본 4개 기관이 있다. 이에 전국 단위에서 국립청소년디딤센터(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거주형 치료재활기관, 용인, 대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매체 중독 전담 기관, 무주), 병원형 Wee센터(13개소), Wee스쿨(16개교)까지 고려하기 시작하면 더욱 복잡해 진다. 소수의 전문가들은 각 기관의 서비스 대상 차이가 있고, 심리상담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지만 사실은 매우 다른 양상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지만 일반대중들은 어떨까?

또한, 실상 이 많은 기관 중에서 학생과 청소년들의 문제양상에 따라 부모를 설득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내원 치료나 집중 치료에 의뢰하고, 돌아와서 다시 사

회적 적응 과정을 돕는 긴 기간동안 이들에 대한 사례개념화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리적 안정화와 일상적 문제 해결을 돕고, 관계를 통해 지지하는 개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공적 기관은 크게 2기관으로 압축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부 산하 위센터 및 위클래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접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보다는 사례를 발굴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과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가장 핵심 기관인 두 기관 마저도 그 운영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교육부 산하 고위기 청소년을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교육청 단위 위센터**의 경우, 1) 저경력 전문상담교사의 신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1-2년 단위의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 이후 위클래스로 전근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고위기 아동 및 청소년 상담에 대한 노하우를 개발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2) 지역 교육청 소속 학교상담자 대상 사업 및 소규모 학교 순회 상담 업무 등을 병행하기 때문에 고위기 청소년 개인상담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3)고경력 또는 고역량 전문 상담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인사 정책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이 활발히 운영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조건이다. **병원형 위센터** 역시 그 시작에서부터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수익 보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장애 요인들도 보고되어 있다(김효선, 배희분, 장덕호, 2019). 이에 충남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병원형 위센터의 개소보다는 자문의 연계나 학교방문 사업이나 연계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이 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9세부터 24세 대상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의 경우, 위클래스와 위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두에서 개인상담 의뢰를 받아 안정적으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인상담을 제공하는 있는 기관임에도 1)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주체가 되는 정책적 개선 움직임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2) 민간 재단에 위탁 운영 되는 경우, 위탁된 재단에 따라 운영의 불안정성이나 불합리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들은 3) 지자체에서 성과 위주로 예산을 부여하는 재정 구조로 인해 무한정 늘어나는 프로젝트성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4) 저조한 임금 및 처우 문제로 인해 평균 근속년수가 3년 이하로 보고될 만큼 매우 짧다.

종합적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산하 고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기관인 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각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책적 과제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고려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지정토론

중독상담의 현장 적용 방안

김 속 희 전문상담교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중독상담의 현장 적용 방안

김숙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1. 시작하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에 대한 부담과 친구 관계에 서 오는 스트레스, 가족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및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상담은 상담교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지와 해결을 돕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을 말한다. 상담에서는 주로 학업 및 진로지도, 심리적 지원(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등),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및 학교생활의 적응 등을 지원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중독은 물질 중독 (알코올, 마약, 담배, 약물 등)과 행위중독 (스마트폰, 게임, 도박, 쇼핑 등)을 포함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나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중독은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도 종종 순환적 패턴을 보이며,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

약물 중독은 일반적으로 특정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 약물을 지속적용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건강한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약물 중독은 다양한 약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했던 약물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최근에 상담했던 학생들 중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불면증이 오거나 공황 증상으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부시간 부족으로 장시간 깨어있기 위해 카페인을 복용하는 경우 그 용량이 과다해서 불안증세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 중독은 이처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 중독상담을 위한 학교 상담실 실태와 활성화 방안

중독은 다른 문제 유형과 달리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학생이 게임중독으로 인해 상담실에 왔을 때는 그 후유증으로 잠을 안자서 매일 지각하고,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심지어 등교를 거부하는 상태까지 와야지 상담실로 오게 된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적고 비자발적으로 부모나 교사가 데리고 왔을 때에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중독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도 약하고 상담을 해서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추수지도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독은 다른 상담과 달리 재발의 위험이 높고, 아홉 번을 참다가도 한번을 참지못하면 상담의 효과는 원위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독을 끊는 과정은 참으로 지치기 쉽고 지난한 과정이며,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상담실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상담교사 배치율을 보면 천안지역만 해도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50%를 갓 넘은 수준이다.

■ 학교급별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2023.3.1.기준)

구 분	학교수	Wee클래스 구축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교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합계
초등학교	79	52	24 (정원외3포함)	17	41
중 학 교	31	30	17 (정원외1포함)	13	30
고등학교	22	22	18 (정원외1포함)	4	22
특수학교	3	3	2	-	2
대안학교	2	1	-	-	-
합 계	137	108	61	34	95

이처럼 학생 중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에 상담교사가 미배치된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밀착되고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하루빨리 한 학교당 적어도 1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중독문제 뿐만 아니라 정서나 행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

3. 중독에 대한 예방과 조치의 분리 및 상담개입 방안

학교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료 조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현재 상담교사가 다루고 있는 문제 행동(자해 자살예방, 정서행동특성검사, 학교폭력예방, 학업중단숙려제 등)도 산적해 있는데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과 그 치료 조치까지 한다는 것은 업무의 과중일뿐더러 약물에 대해 더 전문자인 보건교사의 능력을 간과한 것이다.

현재 학생들의 약물 중독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매년초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으로 마약류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 및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현재 대부분 보건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적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군과 약물 사용자에 대한 효과성이 낮다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 해야한다.

또한 약물사용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에는 병원 약물치료와 더불어 상담이 개입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독상담의 심리적 개입 방법은 각 개인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몇가지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인지행동치료(CBT): 개인이나 그룹에서 심리상태와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한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식별하고 수정하여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학습한다.

■ 모티베이션 인터뷰 및 치료(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Therapy): 내적 동기부여를 증진시켜 변화를 유도한다. 이는 환자의 의지를 강화하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 대인관계 치료: 중독이 가족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가족 멤버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조절: 중독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가르치며, 건강한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집단상담 및 자조 모임: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공통된 경험이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지원해주는 활동을 통해 중독문제를 극

복한다.

4. 다양한 치료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활용

전국에는 다양한 중독 관련 지원센터들이 있고, 이런 센터에서는 중독 예방, 치료,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위기학생 치료지원사업으로 차오름센터, 고위기상담 위탁기관(맑은마음상담센터),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병원 2곳)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를 두고 있다.

○ 위기학생 학생 치료지원 운영 (충청남도교육청 상담활동 기본계획)

기관	내 용
차오름센터	◦ 위기학생 긴급 위기 개입 ◦ 기숙형 집중 치유프로그램 운영 ◦ 위기학생 중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 안정이 필요한 학생 의뢰
고위기 상담위탁기관	◦ 고위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치유지원 ◦ 집단 상담, 교사 자문, 학교 컨설팅 운영 ◦ 위기사안 발생 시 자문 및 위기지원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센터	◦ 정신건강전문가 심층평가 위기개입 ◦ 학부모 상담 및 교사 자문 ◦ 학생 맞춤형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마음건강 자문의 운영	◦ 부적응 및 고위기 사례 상담 자문 ◦ 도내 정신건강전문가 위촉 치료지원 ◦ 교사 및 학부모 상담자문 및 교육

현재 운영 중인 차오름센터나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북부권: 천안중앙병원, 남부권: 백제병원)를 활용하여 중독상담사를 배치하고 전문가로 키운다면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대구 소재)와 같은 스마트폰 중독 치료 전문기관에서 약물중독이나 도박 등 종합적인 중독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면 한정된 자원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력이 있는 상담교사가 근무하려고 하지 않고 신규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몇 년 지나지 않아 학교로 발령 받아 나가려 한다. Wee센터의 근무조건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중독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상담교사가 전문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5. 맺는말

중독상담은 그 자체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해당 문제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된다.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과 중독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핵심이다. 상담은 해당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 심리적 지원, 새로운 생활 방식의 습득 등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중독을 극복하는 과정은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적극적 치료와 상담을 통해 이겨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